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 성경: 아모스 8장 9-14절

Tag:

9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굶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하여 쓰러지리라

14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암8:9-14)

아모스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

특히 아모스는 정의에 민감하였다. 그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의 사명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아모스는 재앙을 대비하는 기상청과 같은 직무를 감당하는 자였다. 그는 정의감각으로 인해서 정의가 사라진 땅들에게 임하게 되는

재앙의 전조를 감지하고 소리높여 재앙을 예고하게 되었다.

재앙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면 재앙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드고아 고원 출신으로 평상시에는 목축업과 빵나무 재배를 주업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재앙을 선포한 선지자로 유명해 졌다.

주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계시가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다를 비롯한 근방 모든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크던 작던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재앙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각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도 매우 세밀하며 구체적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재앙은 미리 감지하고, 미리 예방하고, 미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재앙이 닥치면 동물들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나 사람들은 사방으로 움직인다.)

(지진에도 여진이 있듯이 어떤 재앙들은 재앙으로 인한 재앙들이다. 사람의 신체 뿐만 아니라 기계들도 한쪽이 망가지면 그 부속만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미 그 부속이 망가지면서 주변에 연관된 부속들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부속들도 모듈화 되기도 하고 심지어 애플사는 제품 하나 전체를 모듈로 인식하기도 한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삶이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심하기 보다는(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돈벌이에 민감함.)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의 변화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영적인 사람들)

why?

동물이나 식물들은 지구환경의 변화에 크게 반응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구 환경 자체를 변화시킨다. (반대의 경우보다 더 중요한 사항임.)

작게 생각해 보자.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호르몬 발생에 영향을 더 미치는가, 아니면 호르몬이 사람의 생각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을 더 정확하게 해 보자. (질문 기법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다르다.)

호르몬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가, 사람의 생각 때문에 호르몬의 균형이 망가지는가?

-눈물이 많이 나와서 내가 슬퍼지는가, 내가 슬퍼서 눈물이 많이 나오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신체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거나 결정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이 자신의 인생 전반을 결정 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적인 생각의 결과는 역사를 바꾸고 심지어는 지구의 환경까지 바꾸고 재앙을 부른다.

성경에는 그 결과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 한다. 또 반대로 재앙의 전조(omen; 징조, 조짐)가 있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전조를 감지하고 소리를 지른다.

물론 거짓 전조를 발생하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은 것이 골칫거리다. 그래서 결국은 각 사람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참과 거짓에 대한 민감성이다.

결국 이야기가 영적 민감성의 주제까지 왔다.

영적 민감성이란 무엇인가?

-혈육감성(신분감성)

-진위감성

-선악감성

-정결감성

-가치감성(질감)

-순위감성 우선순위가 다음순위보다 더 중요하다

-정의감성

-염치감성

-애증감성

-사람은 영적 민감성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호르몬과 신체가 반응하게 되고, 자신의 취향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재앙에 대한 예견이나, 소망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지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된다.

-이런 영적 민감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오직 성경말씀으로 말미암는다.

1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4:4)

영적 민감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민감성에 대한 검증기관의 역할을 한다.-이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듯 영적 민감성이 살아날 때 내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고 재빨리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영적 민감성이 더 활발하게 살아나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자. 아멘.

나 홀로 집에1

반지의 제왕 호빗

<찬양예배>

제목 : 네 직무를 다하라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5절

Tag: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4:1-5)

영적 민감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의 출석과 자기의 직무를 말함. 출석하지 아니하면 직무는 사라짐.

1번 직무;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직무 (예배와 예배봉사)

2번 직무;내가 교회 앞에 행하는 직무 (교회 살림과 질서)

3번 직무;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직무

4번 직무;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직무

영성의 신성함. 진정한 영성이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바르게 작용하게 된다.

-혈육감성(신분감성)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3:35)

-진위감성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32)

-선악감성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눅18:19)

-정결감성

-더러움.

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18:2)

-가치감성(질감)

-순위감성 우선순위가 다음순위보다 더 중요하다

-정의감성

-염치감성

-애증감성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 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5)

